

새로운 인재상 부합하는 진로지도 되어야

전문가 칼럼



김홍유
한국취업진로학회장

3월은 대학가에 새내기들이 들어오는 입학시즌이다. 이 때면 늘 그랬듯이 대학가 주변의 주점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선·후배들의 만남과 선배들의 경험담에 기초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과거에는 좋은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요즘같이 취업시장이 경색된 환경은 새내기들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절실한 실정이다.

대학의 진로지도란 전공, 취업은 물론이고 직업 교육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생애 관계의 지도이다. 자신과 직업을 이해하고 합당한 일의 세계를 찾는 활동뿐 아니라 일의 세계를 탐색, 결정, 준비하고 그에 따른 직업을 선택하며, 잘 적응해 더 발전 할 수 있을 때까지 직업적 발달을 돋는 전 과정을 진로지도라 한다. 학생들의 취업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수로서 진로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실감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적인 문제를 발견하곤 한다.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취업, 진로라는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삶에서 스스로 애써 얻으려는 것, 위험을 감수할 만한 것, 그리고 수년 또는 평생을 바칠 만한 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많은 좌절과 시간의 낭비, 심하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좌절과 방황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



앞이 보이지 않는 고용경제 터널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일상화 시킨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대학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학생의 다양성을 배려한 진로지도가 더 필요하다.

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에게 학년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지도를 우선해야 한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우선 1학년은 “자기분석”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학 학과에 따라 자신의 진로계획에 대해서 진지한 자기탐색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진로지도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탐색방법이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혼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를 행해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실직(취업률)위주나 공급자 위주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점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고용경제 터널을 지나고 있다.

2학년들은 자기분석에 따른 “직종 탐구와 어학 및 직무능력 준비”에 노력을 해야겠다. 수많은 직종 중에서 나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교양과 직무관련 준비도 시작해야 한다.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는 중요한 시기이다.

3학년들은 “기업분석 및 역량(인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입사전략을 세우고 직종에 따른 경험적 준비, 즉 인턴의 경험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리고 4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취업 스킬 업(Skill up) 단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면접요령, 지원전략, 프리젠테이션 기법, 자기소개서 등 각종 취업과 관련된 미시적인 현안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겠다. 결국 대학에서는 학생 자신의 특성을 발견해서 이해시키고, 일의 세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업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고용경제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고용경제의 한파에 따른 사회의 불안한 변화는 대학교를 나서는 젊은이들에게 청년실업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인 교육정책 및 학사지도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나 정책부서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대학의 학사운영과 단과대학의 학사지도에 대한 직간접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학사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교육방식이다. 교육의 핵심인 미래가치에 근거한 인재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의 학사지도에 따른 미션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성에 입각한 다양한 진로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형식적인 진로지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학생의 미래를 정부의 지원책에 의해 좌우되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마당

송예진
(국어국문과 2015)



#OO_내_성폭력 경희대는 안전한가?

얼마 전 트위터에서 '#OO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통해 공동체 내 성폭력이 고발됐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역시 ‘가해지목인’ A에게 2017학년도 1학기 수업을 배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국문과는 작년 3월 권력형 성폭력이 공문화되었으나 학내 기구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때, 학과는 ‘가해지목인’ B에게 필수 강의를 배당했다. 경희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인가?

경희대 성평등상담실에서 서울캠퍼스 재학생 1,3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재학생 성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13.5%를 차지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친구·학과 선후배’가 24.8%로 가장 높으며, ‘학교 선생님·교수·강사 등’도 4.5%로 권력형 성범죄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겪었을 때 대처 방식’에 관해선 ‘불쾌했지만, 계속 봐야 할 사람이라므로 참았다’가 20%, ‘대응을 못하고, 나중에 주변인들에게 얘기하고 기분을 풀었다’가 44.2%를 차지했다. 신고하거나 전문 기관에 상담한 경험은 2.1%에 그쳤다. ‘성희롱·성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가 43.1%,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가 15.5%를 차지했다. 경희대는 성폭력 피해가 침묵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였다.

보호장치 부재의 공간 대학, 구성원의 목소리 필요해

슈워츠(Schwartz,et.al)는 여성주의 일상행위론으로써 대학교가 성폭력 조건이 갖추어진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북미의 ‘강간문화(rape-supportive culture)’를 예시로, 성폭력적 행위를 지지하는 남성을 ‘준비된 가해자’, 엄중한 처벌이 불가능한 기관을 ‘보호 장치 부재’의 공간, 강간의 책임을 내면화시켜 신고하지 않는 여성들을 ‘적절한 피해자’라고 설정했다. 대학교 내 성폭력 피해가 침묵으로 그치는 현상은 위 요건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부재한 상황에선 성폭력을 비판하는 구성원 또한 ‘보호 장치 부재’를 심화시킬 수 있다. 성폭력 고발을 공동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은 ‘앞으로 나서지 않는’ 피해자를 의심한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나 엄중한 처벌에 취약한 공동체를 자성해야 마땅하지만 ‘사실이라면 신고하라’는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구성원에게 ‘보호 장치 부재’를 인식시키며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도 위장된 평화가 지속될 공동체를 탄생시킨다.

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칙, 내부 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48.8%를 차지했다. 대학은 일상적인 공간으로 구성원 모두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상대적으로 권리가 낮은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발할 경우 집단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다. ‘보호 장치 부재’의 공간, 대학,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성원 전체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